



-서울시의 광역철도직결사업 불가의견에 유감표명-

-수원시민들의 숙원인 3호선 연장(수서~수원)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김직란 경기도의원, 3호선 연장(수서~수원) 반드시 추진되어야

이영진 news@thesegye.com | 2021-02-25 01:20:54



[경기도=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2월23일(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시민대표들과 서울시, 경기도와 연결되는 도시·광역철도 직결 사업불가 방침으로 인해 영향이 생길 3호선연장(수서~수원)과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경기·인천지역 도시·광역철도의 시외 연장에 있어 직결이 아닌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도시·광역철도 직접연결 불가방침으로 인해 경기도내에 추진 또는 구상되고 있는 8개 철도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 선언으로 인해 앞으로 추진될 3호선연장(수서~수원)사업도 영향이 있을 것이기에 수원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정담회를 시작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서울까지 운행되는 용서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해 경기남부시민들의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서3호선 연장이 절실한 바, 경기도차원에서 3호선 연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호선 연장이 서울시의 방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경기도 성남 모란역과 판교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과 같이 경기도만의 도시철도 마련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통도 복지인 것을 강조하면서 “신분당선·인덕원선·분당선 등 경기도의 갈비뼈 역할인 동서방향철도는 마련되고 있는데, 척추역할을 하는 남북 방향철도가 없다”며 “수원시민들의 불필요한 이동시간 증가를 줄이고, 잦은 환승으로 인한 경기도 환승할인지원금 증가 등 불필요한 예산증가가 방지되기 위해서는 수서3호선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하철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사업에서 판교와 연장하는 방안은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 방문 등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는 광교권역,아주대권역,매탄권역,권선권역,세류권역을 중심으로 수서3호선 수원연장을 통해 수원시 교통체증을 해결하려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이다.

금일 정담회에는 추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수원9), 오진택 부위원장(화성2), 김종배 도의원(시흥3)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저작권자 © 세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thesegeye.com>]